

Dear Beloved Partners,

We are so thankful for your love and support over the years. We thank God for giving us His Son as a ransom for our sins. We were also blessed this month to get a visit from a dear pastor and his wife from S. CA . They came to spend a day with us and shower us with gifts & love. It would have been so much easier for them if they would have just rested and not come. Just like the three Wise Men who brought gifts of love and traveled far, the MSN & SMN came to us this season to show us, love. We thank the church and elders for supporting and blessing us!

Every day Prisca gets to witness children in her class growing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 Savior and loving HIM! Also, Aquila preaches to the young men at the rehabilitation center and gets to see the men grow in the knowledge of Christ as well as their love for HIM. PTL! Aquila & Prisca may plant and water the seeds but praise be to God who causes the growth!

The LORD has put member care on our hearts & we discovered a ministry by default. Just inviting people over for a meal and sharing w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through fellowship, worship, and prayer has brought healing to many who came. (full-time Workers) We also were connected with a Korean-American ex-pat. couple (the husband works for a big American company) They too were touched and blessed as we ate and had fellowship together. We will continue to have a Bible study once a month with this family. Please pray for more opportunities to serve God's servants through meals, fellowship, worship, and prayer.

Last but not least, Aquila was able to go to a 4-day GP meeting & HEALING CAMP held in Thailand for GP members. A church in Korea sponsored and paid for airfare & accommodation. It was a good time of healing and refreshment for Aquila, though he went alone. Please continue to pray for Aquila's health, our visit to the USA in the summer of 2023, and for our boys on 2 different continents to be pleasing to Him and healthy.

Blessings,

Aquila, Prisca, & 4 boys  
(Nov. 30, 2022)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남가주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가 방문해서 저희는 축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짧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왔고 저희에게 아낌없는 선물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휴식하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더 편안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들고 먼 곳을 여행한 세 동방박사처럼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번 시즌 저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를 후원하고 축복해 주신 교회와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브리스길라는 학교 아이들이 주님과 구세주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굴라는 중독재활원에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형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찬양을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씨를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멤버케어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식사초대하고 교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저희 삶에 행한 일을 나눔으로 초대받은 많은 사람(풀타임 사역자) 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또한 재미교포 한 부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국 대기업 근무) 그들 부부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감동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가족과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다. 식사초대와 교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기회가 더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굴라는 태국에서 열리는 4 일간의 GP 모임과 힐링캠프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가 항공료와 숙박비를 후원했습니다. 아굴라에게 치유와 재충전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굴라의 건강, 2023 년 여름에 미국 방문, 두 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들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건강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하며,

아굴라, 브리스길라, 함영성민  
(2022 년 11 월 30 일)